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영향 요인

전소자¹, 오재우^{2*}, 전미경³

¹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³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ceive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Abuse

So-Ja Jeon¹, Jae-Woo Oh^{2*}, Mi-Kyung Jeon³

¹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³Professor, Dept. of Nursing, Munkyeong University

요약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전문가적 책임,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력의 정도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09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지각된 행위통제력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13.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구축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아동, 학대, 책임, 태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ive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ttitude towar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perceived degree of behavioral control, an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abuse. Data collection was from September 1 to 30, 2021,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fluencing factor 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abuse wa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influence power of variables was 13.6%.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an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build an environment to improve nursing student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child abuse and to improve their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abuse.

Key Words : Nursing Student, Children, Abuse, Responsibilities, Attitudes

*Corresponding Author : Jae-Woo Oh(ojw77@konyang.ac.kr)

Received January 25, 2022

Accepted March 20, 2022

Revised February 28,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총체적인 발달과 정서적 안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중요한 보살핌이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부적절한 관리로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사회적 문제이며[1], 사람의 단계별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2].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되거나 그 강도가 심해지기 전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변의 관심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동 및 학대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아동 발달 시기에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로서 매를 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체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데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3]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의 88.5%가 체벌을 유아 훈육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4, 5]. 2018 아동 종합실태조사[6] 결과에 따르면, 훈육방식에서 신체적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2013년에 59.6%, 2018년 64.4%로 약간 상승하여 보호자의 체벌 사용 감소는 확인되었지만, 같은 기간 체벌이 '필요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은 35.0%에서 39.3%로 증가하고[7], 아동 보호자 10명 중 4명 정도는 자녀 훈육 시 체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내 체벌을 사용하는 보호자의 비율이 아직 많으며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인식이 잔존해 있다고 하였다[8]. 이러한 분위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학대당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나 위기 개입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게 되는 절박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3]. 특히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76.8%가 친부모가 가해자였

으며, 학대 장소는 가정이 80.4%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신고 의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 실무 현장에서 아동 및 가족과 직접 접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과 환경을 가장 먼저 발견하며, 아동학대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대상 아동에게 간호 증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문가이다[9]. 또한, 간호사는 아동과 애착 형성이 어려운 부모나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있는 양육자에게 아동 양육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과정에 있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 역시 체계적인 아동학대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민감도와 지식을 향상시키고,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실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에 관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대한 커리큘럼에 밀려 극히 일부분만 다루지고 있는 실정이다[11]. 또한,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수준이 높지 않았고, 특히 학대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법적 신고체제와 관련된 내용 등 이에 대한 지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로써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여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심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 능력과 법적 신고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전문가적 책임,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

된 행위통제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북지역 소재 C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이익과 잠재적 위험을 연구 참여에 의한 불편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측변수 3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로 설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119명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답변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하고 1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성혜(1992)가 개발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적 찬성'에 4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대체로 반대'에 2점, '전적 반대'에 1점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3.2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Feng과 Levine(2005)가 개발한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아동학대 신고 의도 척도) 측정 도구 중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문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양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학대 가해자 체벌에 대해 허용적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Feng & Levine, 200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3.3 지각된 행위 통제력

Feng과 Levine(2005)가 개발한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아동학대 신고 의도 척도) 중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력 측정 도구는 아동학대 보고에 대한 간호사 자신의 조절능력으로 Likert 5점 척도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문제를 지각하고 다루는데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하며, Feng & Levine(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학과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였다. 모집 공고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비밀보장 및 자료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작성 소요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설문지 작성 후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하였고, 대상자를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로,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Regression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113명(89.7%), 연령은 22~24세가 64명(50.8%), 18~21세가 48명(3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이 52명(41.3%), 2학년이 44명(3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참고).

Table 1.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 Variables | Categories | N(%) | Attitude toward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
| | | | Mean±SD | t or F(p) |
| Sex | Male | 13(10.3) | 4.577(.215) | 6.751 (.011) |
| | Female | 113(89.7) | 4.776(.266) | |
| Age (years) | 18-21 | 48(38.1) | 4.789(.254) | .777 (.462) |
| | 22-24 | 64(50.8) | 4.743(.209) | |
| | 25≥ | 14(11.1) | 4.696(.481) | |
| Grade | 1 | 16(12.7) | 4.763(.173) | 2.073 (.107) |
| | 2 | 44(34.9) | 4.819(.172) | |
| | 3 | 52(41.3) | 4.733(.272) | |
| | 4 | 14(11.1) | 4.629(.480) | |

3.2 대상자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력,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력,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위통제력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8점,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는 6점 만점에 4.51점으로 보통 이상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attitude towar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n=126)

| Variables | Mean±SD | Range |
|--|------------|-------|
|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 3.788±.784 | 1-4 |
| Perceived Behavior Control | 3.589±.589 | 1-5 |
| Attitude toward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4.515±.443 | 1-6 |

3.3 변수들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지각하는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력,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행위통제력($r=.3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참고).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n=126)

| Variables | A(r) | PR(r) | P(r) |
|-----------|------|----------|------|
| A | 1 | | |
| PR | .168 | 1 | |
| P | .062 | .338 *** | 1 |

A: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PR:Attitude toward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 Perceived Behavior Control
 : ***=Significant difference (α .000)

3.4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회귀분석의 가정 검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가 0.996으로 0.1이상,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4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오차의 자기상관성 Durbin-Watson값이 2.003으로 2에 가까워 독립성의 충족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 내 등분산성 만족과 정규성을 확인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은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은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13.6%였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Abuse (n=126)

| Variables | Attitude toward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 | |
|--|--|------|---------|--------|------|
| | B | SE | β | t | p |
| Constant | 3.310 | .283 | | 15.910 | |
|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 .083 | .047 | .147 | 2.553 | .082 |
| Perceived Behavior Control | .248 | .063 | .329 | 3.920 | .000 |

$R^2=.369$ adj. $R^2=.136, F(p)=9.690(<.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력 및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이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경미·김은주[1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체벌에 대하여 허용 정도가 낮았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아동 체벌에 대한 허용 정도가 낮은 것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동에 대한 양육방식과 과정, 체벌에 대한 허용범위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중국계 학생들은 부모의 권위적이고 거친 행동과 신체적 체벌에 대해 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1].

Feng과 Levine[9]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아동 체벌에 대해 허용 정도가 낮았는데 그 이유로 서구적인 문화의 유입과 경제적 발달, 젊은 세대 내의 문화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성별, 연령, 전문적 교육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아동학대의 신고 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echter ST·irosh E·Cohen A[12]를 고려할 때 체벌에 대한 허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간호사의 신고 의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체벌에 대한 허용 정도를 낮추는 방안이 대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지각된 행위통제력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8점으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력 점수가 2.78~3.21점으로 보고한 김진선·박경숙[13]의 연구, 조경미·김은주[10], 박혜영[14], Feng과 Levine[9]의 연구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간호대학생 2학년 이상으로 아동간호학 수강 경험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각된 행위통제력은 자신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파악하고 신고하는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10]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는 6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희정[15]

의 연구결과인 3.7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의 빈번한 접촉 및 아동간호학 수강 경험이 있는 2,3,4학년 학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어떤 전문가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학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행위통제력($r=.3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정희정[15]의 연구결과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력 및 전문가적 책임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Feng과 Levine[9]의 연구에서 인지된 행위통제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전문가적 책임을 느껴 아동학대 신고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행위통제력 및 전문가적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은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13.6%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대 부모에 대한 체벌에 대한 태도,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이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조경미·김은주[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체벌에 대한 태도의 허용 정도를 낮추고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력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브레인 라이팅과 같은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방법의 적용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통한 시뮬레이션 수업 적용 등과 같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간의 영향력이 13.6%로 낮아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예비간호사인 간

호대학생의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지각된 행위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으로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 체벌에 대한 허용 정도를 낮추고, 지각된 행위통제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각된 행위통제력 및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는 학부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간호 전문직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간호대학 교육과정 확인 및 개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활동하기 전에 올바른 의식과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적용 및 비교과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C. W. Christian. (2008). Professional education in child abuse and neglect. *Pediatrics*, 122(1), 13-17.
- [2] B. J. Lee & S. W. Kim. (201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8(2), 163-195.
- [3] D. H. An, H. S. Park & H. J. Lee. (1998). The Attitude toward Child Abu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7(4), 661-673.
- [4]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1997). www.kedi.re.kr/
- [5] J. L. Kim & H. M. Yoon. (2002). Mothers' Attitude toward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 Maltreatment. *Life Science Research Journal*, 6(2), 77-93.
- [6]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8). *2018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www.kihasa.re.kr/
- [7] J. H. Rue. (2017). Child Maltreat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Child Protection System.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47, 5-23.
- [8] H. S. Jang & K. H. Kim. (2019). Exploration of the Child'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Korean Social Welfare*, 48, 133-167.
- [9] J. Y. Feng & M. Levine.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Child Abuse & Neglect*, 29(7), 783-95.
- [10] K. M. Jo & E. J. Kim. (2016).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2), 145-152. DOI : 10.4094/chnr.2016.22.2.145
- [11] G. K. Hong & L. K. Hong. (1991).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ld abuse and neglect: Chinese versus Hispanics and whites, *Child Welfare*, 70(4), 463-475.
- [12] S. T. Shechter, E. Irosh & A. Cohen. (2000). Physical abuse-physicians knowledge and reporting attitude in Israel.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16, 53-58.
- [13] J. S. Kim & K. S. Park. (2005).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2), 211-220.
- [14] H. Y. Park. (2010). *Awareness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by Emergency Room Nurse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15] H. J. Jung. (2019). *The Effects of Emergency room Nurses' Burnout, Emotional Intelligence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erceived Behavior Control for Child Abus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전 소 자(So-Ja Jeon)

[정회원]



- 2004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6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5년 9월~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간호, 여성간호
- E-Mail : junsoja@chsu.ac.kr

오 재 우(Jae-Woo Oh)

[정회원]



- 2000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4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건강, 가족간호
- E-Mail : ojw77@konyang.ac.kr

전 미 경(Mi-Kyung Jeon)

[정회원]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박사)
- 2011년 4월~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아동청소년간호, 간호교육
- E-Mail : jeonmk4311@nate.com